

“출산장려금 지원기준 완화해야”

우수한 진안 홍삼 제품 홍보 나서

진안군홍삼한방산업클러스터사업단, '수원 메가쇼 시즌2' 참가

(사)진안군홍삼한방산업클러스터사업단(단장 김정배, 이하 사업단)은 지난 8일~11일까지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2 수원 메가쇼 시즌2'에 참가해 대한민국 유일의 홍삼 특구 진안군을 대표하는 홍삼 제품들을 홍보했다.

2022 수원 메가쇼 시즌2는 업체의 판로 개척을 위해 매년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마지막 박람회로 250개 사 400여개 부스를 참가했다.

관람객 5만 명, 바이어 2만명 등이 방문해 진안 홍삼의 우수성 및 다양성을 지켜냈다.

사업단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우리군에서 생산되고 진안군홍삼연구소 기술이전 제품인 '이유있는 골라겐', 홍삼 및 한방소재의 시트로 제작되고 미백과 주름 개선에 도움이 되는 '진연홍 마스크팩', 어린이 홍삼제품인 '젤리홍', '빠망 젤리'를 전시했다.

또한 진안군수품질인증제품인 '프리미엄 홍삼정(농축액)', '프리미엄 홍삼정 골드(스틱)'과 170년의 역사를 가진 태평주에서 생산된 '진안블랙



4도, '진심홍삼주 53도' 제품 등 다양한 진안홍삼 제품들을 홍보했다.

또한, 해외 판로와 시장 개척을 위한 바이어 및 유통 관계자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으로 수출 상담에도 적극 참가하여 진안홍삼 매출 확대에 박차를 가했다.

이를 위해 진안군수 품질인증 제품인 진안홍삼 달인액과 홍삼 캔디·젤리는 직접 시음 및 시식 이벤트를 통해 고객들에게 진안홍삼의 진한 맛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김정배 단장은 "진안군의 우수한 홍삼 제품들을 선보여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 트렌드에 맞는 상품 개발을 위해 박람회 참가를 추진했다"며 "관내 업체들의 소득 증대 및 유통 판로 확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의회 이영희 위원, “임산부 전입자도 출산장려금 받을 수 있어야” 강조

무주군이 인구 유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주군의회 이영희 위원은 (사진)은 지난 8일 열린 무주군의회 제29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출산장려금 정책에 대해 질의하면서 타 지역에 주소를 둔 임산부도 하더라도 출산 전 무주군에 전입하면 출산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무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으로 지원대상 자녀의 보호자가 자녀 출생일 기준 1년 이상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주군은 2023년도 본예산에 출산장려금 2억7120만 원을 계상했다.

이영희 위원은 "보호자가 반드시 무주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규정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 무주군에 살고자 하는 임산부 부부에게도 출산 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한다면 인구유입은 물론 아동정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희 위원은 또한 무주군의 아이들에게 태어날 때부터 대학교를 마칠

때까지 지원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젊은 세대의 결혼적령기가 늦어지고 있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는다. 경제적인 문제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이 늘어나고, 젊은 엄마들이 짊어진 무거운 짐을 언제 내려놓을 수 있을지 모르는 점이 답답하다. 부부가 적어도 두 명의 자녀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해야 인구감소도 막을 수 있다. 지금 태어난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도 무주군에 정착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들도록 출산장려금을 넘어선 다양한 지원·보호정책들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춘성 진안군수, '귀농활성화 선도인상' 수상

농협중앙회 주관 총 8개 자치단체장 수상... 다양한 정책으로 활력 있는 농촌 만들기 노력 높이 평가

전춘성 진안군수가 지난 9일 귀농활성화 선도인상을 수상했다.

귀농활성화 선도인상은 농협중앙회가 주관해 농업인구 증대와 농업의 존립 기반 강화를 위해 귀농인과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친 자치단체 공직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전춘성 진안군수를 비롯해 총 8개 자치단체장(전북 진안군, 경기도 안성시, 강원도 평창군, 충북 진천군, 충남 천안시, 전남 해남군, 경북 상주시, 경남 진주시)이 참석한 가운데 선도인상 시상식이 열렸다.



전춘성 진안군수(앞줄 왼쪽에서 네번째)가 지난 9일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귀농활성화 선도인상을 수상했다.

전춘성 군수는 귀농인과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으로 활력 있는 농촌 만들기에 적극 노력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진안군은 귀농 예정단계에서부터 멘토를 지정해 영농기술 및 생활, 문화 전반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임주민과의 융화를 위해 마을영양회, 집들이, 지역민과 함께하는 귀농귀촌 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체제형 가족농원(8세대)과 귀농인의 집(5개소), 게스트하우스(4실) 등의 임시거주시설을 운영하여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동아리 활동, 영농기반 임차비 지원과 스마트 온실 조성사업 추진 등으로 영농기반이나 경험이 부족한 귀농 청년농업인

에게 기술습득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 귀농인들에게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로 인해 진안군 귀농귀촌인은 △2020년 470세대 636명 △2021년 615세대 877명 △2022년 9월말 기준 510세대 835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중 40대 이하 청년 귀농귀촌인은 31%에 이르러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춘성 군수는 "지역 여건에 맞는 농업정책의 체계적인 전문화와 균형화가 귀농·귀촌인들의 성공적인 정착이라는 소중한 성과를 가져다 준 것 같다"며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농촌 지역에서 귀농인 유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 살고 싶고, 살기 좋은 진안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한파 대비 방문건강관리 강화

진안군은 올겨울 한파 시작됨에 따라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파 예방 방문건강관리를 강화한다.

관리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만성질환자, 독거노인 등 건강취약계층 2,000여명이다.

이번 건강관리 강화는 겨울철 낮은 온도로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상승해 저체온증 및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 발생률이 높아져 각별한 주의의 중요성을 알리고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진안군은 방문건강 전담 인력을 중심으로 가정 및 경로당을 방문해 혈압·혈당측정 등 건강모니터링과 방한용품(장갑)을 제공하고 한파 대비 예방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한



다는 계획이다.

송미경 보건소장은 "한파 피해에 취약한 건강취약계층이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보건의료원, 의료취약계층 본인부담금 지원

장수군 보건의료원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장수군에 주소가 되어있는 의료취약계층인 65세 이상 주민,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외래 및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연중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0월부터 내과 의사를 채용해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2년 11월 말 기준 16,296명을 본인부담금을 지원했고 2023년도에도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유봉욱 장수보건의료원장은 "의료비 부담으로 진료 기회를 할 수 있는 의료취약계층에 대해 경제적 부담 완화와 군민건강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제2기 장수군 청년네트워크 위원 모집

장수군은 제2기 장수군 청년네트워크(협의회) 위원 20명(연인 희망자 포함)을 이달 28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대상은 만 18세~49세의 청년 중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또는 장수군 단체·직장 등에서 활동하는 청년이다.

청년네트워크 위원으로 선정되면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 까지 장수군 청년정책에 대한 다양한 제안을 통한 군정 참여, 분과 활동(주거·가족, 일자리·창업, 교육·문화), 청년정책 관련 행사 및 워크숍 참여, 청년정책 관련 현안 발생 시 회의 및 간담회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군은 청년활동 참여 의지, 관심 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성원을 선정할 예정이며, 회의 등 참석 시 참여 활동수당을 지급하고 우수활동자에게는 연말에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장수군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jsh1792@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우수활동사례 최우수상

무주군 지역자율방재단이 전라북도가 주관한 '2022년 지역자율방재단 우수활동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전북지역 14개 시·군 지역자율방재단을 대상으로 방재활동이 우수한 자율방재단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우수활동을 공유하는 등 자율방재단 활성화가 취지다.

무주군 지역자율방재단은 올해 발생한 태풍, 집중호우와 폭염, 물놀이 안전관리 등 인명피해 최소와 중심의 분야별 활동사례를 발표했다.

순찰(예찰) 활동실적을 비롯한 무더위쉼터 점검, 시·군·구 간 상호협력, 예산확보 실적 등에서 1차 서류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1위를 차지했다. 이어 2차 프레젠테이션 평가를 통해 최우수 팀으로 선정돼 도지사 표창과 포상금 2천만 원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무주=전문선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